

모세의 리더십과 개혁주의생명신학

Moses' Leadership among People's Murmuring and Reformed Life Theology

황성일(Sung-II Hwang)
광신대학교, 구약학

I. 서론

한국교회는 개혁주의신학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백 년 동안 큰 부흥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 단계에 들어섰고, 교인들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목사에게 관련되었거나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한국 사회 안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개신교회의 목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혁주의신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신학 체계보다도 성도의 영성을 깨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개혁주의신학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2009년 11월에 창립된 개혁주의생명을

신학회는 시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 근간인 개혁주의신학을 따르며,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주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개혁주의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고 부른다. 이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요, 가장 위대한 신학 체계인 개혁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개혁주의신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자신의 지성과 의지의 교만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에 힘쓰고자 한다.”¹⁾ 이 선언문은 “자기 부인과 말씀 중심, 기도와 성령운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것이다. 흔히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성과 의지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견고한 벽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자세로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자신의 지성을 비추어보아야 한다. 또한 자기 의지의 확고함과 올바름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교훈에 굴복하고 그의 인도에 따르려는 열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²⁾ 목회자가 추구하는 바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스라엘

1)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2010), 12f.

2) 구약에서 생명(hayāh, hayyim)은 단순히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충만하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성취하려 했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신 4:1).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항상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에서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였다(출 32:7-14).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민 14:13-19).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르치는 모든 계명들은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신 5:33; 8:1, 3; 16:20; 30:16, 19).

모세의 위대함은 단지 그의 목적, 즉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그의 단 하나의 목적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갖는 위대성은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 히브리서 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H. Ringgren, “chāyā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6), 334.

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난에 “함께” 하였다.

이와 같은 모세의 헌신이 가지는 위대성과 그 속에 담긴 의도의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민수기 20: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충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 모세가 그 모든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현대 목회자들은 모세처럼 성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이면서, 모세가 책망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필자는 모세의 리더십이 갖는 특징들 중에서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세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기대되는 현대의 목회자들이 모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말하려고 한다.

II. 출애굽기 2:11-22에 나타난 모세 리더십의 특징

A. 개요

출애굽기 2:1-10은 모세의 출생과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³ 그리고 출애굽기 2:23 이후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 두 기록 사이에 끼어있는 출애굽기 2:11-22은 모세가 출생한 이후 소명을 받기까지 그 중간 시기에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들(narrative)을 담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⁴

a 첫째 이야기(2:11-14):	b 둘째 이야기(2:16-22):
모세의 개입(2:11-12)	모세의 개입(2:16-17)
히브리 사람의 반응(2:13-14)	여인들의 반응(2:18-19)
바로의 반응과 결과(2:15)	제사장의 반응과 결과(2:20-22)

첫째 이야기는 모세가 이집트에 거주할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2:11-15). 둘째 이야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겪은 일을 다루고 있다(2:16-22). 이 두 이야기들이 비록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연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11절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그리고 23절에서는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이 각각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이야기들이 마치 하나의 큰 이야기의 작은 두 부분들인 것처럼 동일한 구조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시작한 문단이 22절까지 이어지고, 23절부터 새로운 문

3) 모세라는 이름은 “아이 child”라는 뜻의 이집트어로서, 이집트 왕족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했을 때, “건져 내는 사람” 혹은 “구원자”의 뜻이 된다. 고든 웬햄, 「모세오경」(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104.

4) 코우츠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한다. I. 이집트에서의 개입(11-15a) [A. 개입의 첫째 장면: B. 개입의 둘째 장면: C. 결과들], II. 미디안에서의 개입(15b-22) [A. 개입 장면: B. 환대의 장면] George W. Coats, *The Moses Tradition* (JSOTS 161: Sheffield, JSOT Press, 1993) 107.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I과 II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

단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였다. 억압하는 편은 이집트 사람이었고, 억압 받는 편은 히브리 사람이었다. 모세는 주위를 살펴서 보는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집트 사람을 때려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의 싸움에 개입하였다. 이것을 독립된 사건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그 전날 있었던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의 싸움에 모세가 개입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수적 사건이다. 그 결과는 모세에 의해 구원받은 편에 해당하는 히브리 사람의 말로 표현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원한 것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였고, 모세의 권위를 거부하였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 편에 서기를 원했으나,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자기들 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이집트를 지배하는 바로가 모세의 개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설명한다. 바로는 모세에게 적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야 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였다. 억압하는 편은 목동들이었고, 억압 받는 편은 여인들이었다. 모세는 그 여인들을 구원하였다(개역 “도와”). 그리고 모세의 이와 같은 개입이 초래한 결과가 모세에 의해 구원받은 여인들의 말로 표현되었다. 여인들은 모세의 구원을 인정했고, 그를 자기들의 편으로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미디안 광야의 거주민들의 지도자인 제사장 르우엘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설명한다. 르우엘은 모세를 환대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르우엘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의 사위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B. 모세의 리더십

이 두 이야기들을 통하여 모세 리더십의 몇 가지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모세는 민족적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한다(2:11). 둘째, 모세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모세는 항상 압제 당하는 사람 편에 섰고, 압제하는 사람을 대적하였다. 셋째, 모세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서로 싸우는 두 명의 히브리 사람 중에 모세는 잘못 행한 사람(개역 “그 그른 자”)을 책망하였다. 넷째, 모세는 용감하였다. 12절에 따르면,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그 당시 이집트의 정치 및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 자신의 행동을 감추는 것은 불필요한 다툼과 소요 그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한 지혜롭고 신중한 행동에 해당한다. “그 장면이 겁쟁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모세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 그리고 그는 약한 자를 다시 도울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했다.”⁵ 모세가 겁쟁이라면 이집트 사람들의 분노 특히 바로의 분노를 크게 두려워하여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2:14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모세가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행동을 가로막지 않았다. 단지 그 두려움은 모세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사실상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다. 참다운 용기를 가진 사람은 모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모세 스스로

5) George W. Coats, *The Moses Tradition*, 107.

가 후에 고백하는 것처럼(민 16:15), 모세는 자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닥칠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이 두 이야기에서 모세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것은 모세의 정체성(identity)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11절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의 처음에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첫째 이야기에서 모세의 히브리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에 의해 거부된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원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이집트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히브리인 정체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자기들의 “주재(Šar)와 법관(Šōpēt)”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불과했다(2:14).⁷

둘째 이야기에서 미디안 여인들은 모세를 이집트 사람으로 간주했다(2:19). 모세의 참된 정체성과 타인이 바라보는 정체성 사이의 대조가 나타난다.⁸ 그리고 22절에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미디안 사람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

6) 이점에 대하여 헨델은 모세가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노예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말한다. Ronald Hendel, “The Exodus in Biblical Memory,” *JBL* 120/4 (2001), 617.

7) 맥브라이드가 지적하는 것처럼, “주재와 법관”이라는 신분들은, 비록 부정적인 관점에서이지만,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취하게 될 직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S. Dean McBride, “Transcendent Authority: The Role of Moses in Old Testament Traditions,” *Interpretation* 44/3 (1990) 231. 이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이야기와 연결된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땅 속에 묻었다. → 히브리 사람의 질문, “누가” 당신을 주재와 법관으로 임명하였느냐? // 민수기 16장: 히브리 사람의 답변, 너는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한다. 모세의 답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 여호와께서 히브리 반란자들을 땅 속에 묻으셨다.

8) John I. Durham, *Exodus* (WBC 3; Waco, Texas: Word Books, 1987), 23.

려는 모세의 노력과 그노력이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 두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모세가 진정한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 리더십의 한계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에 의해 압제 당하는 히브리 사람의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정으로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먼저 동족들과 동일한 삶, 즉 나그네(게르 gēr)로서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이었다.⁹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 동포를 구원하려고 했던 시도의 최종적인 결과는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었다.

Ⅲ.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반응

A. 세 번의 원망 사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의 처음부터 다양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완전히 떠난 이

9)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 히브리 사람들은 나그네로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불렸으며(창 23:4), 족장들은 모두 나그네로 여겨졌다(출 6:4).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나그네로서 살았다(창 15:13; 신 10:19). 스피나의 정의에 따르면, 성경에서 나그네(게르)는 자신의 본래적 사회적 환경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 안에서 다양한 집단 및 관료들과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Frank Anthony Spina, "Israelites as gērī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dited by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Philadelphia, Pennsylvania: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83), 323.

후부터, 다시 말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시내 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에서 세 번의 원망(*lûn, t̄alunnah*)이 기록되고 있다.¹⁰ 첫째,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다(출 15:22-26).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서 양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였다(출 16:1-36).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다(출 17:1-7).

이와 같은 세 번의 원망 사건에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하게 되어갔다. 첫 번째 사건의 특징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으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건에서 백성들은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가 자신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불평하였다. 한편 모세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백성들에 대한 모세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다. 16:7b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께 대한 원망으로 간주한다. 16:8b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0) “원망하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lûn*이다. 이 단어의 어근은 불확실하다. *lûn*은 수 9:18을 제외하면, 출 15:24; 16:2, 7, 8; 17:3과 민 14:2, 27(×2), 29, 36; 16:11, 41; 17:5에서만 사용된다. 이 동사는 항상 전치사 *al*(*al*)과 함께 사용되며,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주어가 된다. 단지 민 16:11에서는 “고라의 무리”가 주어일 수 있다. 명사형 *t̄alunnôt*(*t̄alunnôt*)는 7번 사용된다. 출 16:7, 8(2), 9, 12; 민 14:27; 17:20, 25. 이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출 16:2; 민 14:2), 모세(출 15:24; 17:3; 민 14:36), 아론(민 16:11), 또 하나님(출 16:7, 8; 민 14:27, 29)이다. 원망에는 갈증과 기아,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프랑켈은 히브리어 *lûn*(“원망하다”)이 정당한 불평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악한 반역”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David Frankel, *The Murmuring Stories of the Priestly School* (SVT 89: Brill, 2002), 19.

세 번째 사건에서 백성들은 먼저 모세와 싸웠다.¹¹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과 싸우는 것은 사실상 여호와를 “시험하는”¹² 행위라고 책망했다. 17:2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와 개인적으로 다투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다. 그들은 원망하면서,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나온 것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하였다. 히브리어 룬(“원망”)은 떠들썩한 소리로 무리를 지어 불평을 털어 놓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모세의 책망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행

- 11) 여기서 “싸우다”(개역 “다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동사는 리브(rib)이다. 이 동사는 아카드 어 라부(rābu “보상하다, 대체하다”)와 어원적인 관련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손해의 정도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투다”의 의미가 유래한 것처럼 보인다. 성경의 용례에 기초하면 히브리어 리브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한다(출 21:18 개역 “싸우다”). 둘째, 법정에서의 공방을 의미한다. 이 때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타난다(렘 2:9 개역 “다투다”). 사람이 주어로 나타나기도 한다(잠 25:8 개역 “다투다”). 셋째, 개인(혹은 드물게 집단) 사이의 말로 하는 싸움을 나타내기도 한다(창 31:36 개역 “책망하다”). 본문에서 사용된 리브는 셋째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말로 하는 싸움의 기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세를 정죄하려 하고 있다.
- 12)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 나사(nāsāh)와 의미상으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동사는 바한(bāhan)이다. 바한은 주로 운문에서 사용되며, 시험 받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데 주관점이 있다. 욥 23:10 “그가 나를 단련하신(바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올 것이다.” 참고/대상 29:17; 시 7:9; 사 28:16 등. “조사하다” 혹은 “감찰하다”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욥 34:26). 바한의 긍정적인 측면은 시 11:5에서 나타난다. “주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바한)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한편 나사는 시험하는 주체의 생각과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나사는 기본적으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목욕을 주거나, 괴롭힐 수 있다(왕상 10:1).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구하는 것도 시험하는 것이다(삿 6:39). 주체의 행동 혹은 판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다. 나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신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참고/시 95:9; 사 7:12. 이 때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반응을 보고 그분을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동인 리브에서 집단행동인 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룬이 있으면 반란의 위험이 존재한다.(출17:4; 민16:11) 모세는 백성들의 항의를 듣고는, 그들이 가진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원인은 그대로 놓아둔 채 화를 내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백성들은 집단으로 모세에게 대항하였다. 더욱이 이 세 번째 사건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질¹³ 하려 한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여호와께 일러바치고 있다(17:4). 첫 번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모세를 원망하였어도, 모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원수인 것처럼 적대하고 있다.

B. 하나님의 반응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만한 것은 이 세 번의 사건들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백성을 책망하는 주체는 항상 모세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물론 모세를 책망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백성들의 원망을 해소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언급하시는 유일한 구절은 출16:12이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 원망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불평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13) 히브리어 동사 sāqal은 아카드어 saqālu “제거하다, 치우다”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참고,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vol. 15 (1984) 168. 그렇다면 히브리어 sāqal은 기본적으로 “돌을 던져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신 17:5; 수 7:25; 왕상 21:13). 이 단어는 단순히 돌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사 5:2; 62:10). 또한 처형과 무관하게 경멸과 증오의 표현으로 돌을 던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삼하 16:6, 13).

그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다."¹⁴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여호와와의 태도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과는 크게 다르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민 14:11-12).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복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였다(민 16:45).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 혹은 원망하는 대상과 관계가 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민 11:10).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양식인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백성이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물과 양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되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 진노하셨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이와 달리 출애굽기의 세 사건들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

14)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233.

한 물과 음식으로 인해서 원망하였다.¹⁵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 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이집 트로부터 시내 산까지의 여정에서 백성은 반복적으로 모세에 대하여 원 망했다. …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에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아니 었다.”¹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유사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은 동일하였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다(민 20:2-13). 이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신다.¹⁷ 그리고 르비딤(출 17:1-7))에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책망하시기보다 이해하신다. 백성들이 쓴 물 때문에 원 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하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생수를 공 급하셨고, 양식 때문에 원망하면 만나를 공급하셨다. 이 모든 과정을 통 하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출애굽기 17:8-16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피곤한 때 를 틈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중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말씀하신다(신 25:17-19).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5) 이한영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과 목마름이 주요 주제였지만 민수기 20장에서 물은 모세에 대한 원망에 마지막으로 포함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에 대한 원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편 민수기 20장에서는 물이 모세에 대한 원망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그의 견해에 동의하기 힘들다. 더욱이 민수기 20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다는 사실도 민수기 20장에서 물의 결핍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한영, 「역사와 서술에서의 오경 메시지 지」(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8), 243.

16) C.F. Keil & F. Delitzsch, *Jeremia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7)*, 51.

17) 강성열, “출애굽 세대의 광야 유랑,”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HOW 04: 서울: 두란 노아카데미, 2009), 305.

피곤하며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피곤하며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책망하기 보다는 돌보아 주어야 한다. 사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광야시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세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광야 기간이었다고 말한다(호 2:15 “어렸을 때와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말한다(렘 2:2). 이와 같은 관점이 홍해를 건넌 이후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세 번의 원망 사건에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보시지 않고, 그들 자신의 연약함의 표출이라고 보셨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부모는 갓난아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부모는 아기에게 전적인 보호를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행해야 할 바를 지시하신다. 출 17:5-6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백성 앞으로 지나가거라.” 백성들이 보는 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행동에 대해 알려야 할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물을 얻게 될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그들 앞으로 지나간다.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고, 일으키는 지팡이다(출 4:17).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장로들에게 증거로 주

어진 것이다.¹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실 기적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¹⁹ 또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장로들과 협력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네 앞에 서겠다.” 이와 같은 신인동형동성론 (anthropomorphism)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의심하는(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의적 태도에 대한 응답이다.²⁰ 하나님의 즉각적인 현존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한편 누구의 앞에 서는 사람은 시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던 것처럼(창 18:2), 모세를 도우시며,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준다.²¹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 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과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적인 공황과 영적 갈등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환경은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여유를 없애고, 지도자 모세와 백성 사이에 갈등을 첨예하게 일으켜 원망과 미움과 싸움이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모든 약점과 미성숙함을 용납하신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

18) John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4) 194.

19) 정규남, 「출애굽기」 (서울: 햇불, 2006), 499.

20)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94.

21) C.F. Keil & F. Delitzsch, *The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7) 77.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C. 모세의 반응

하나님과 달리 모세는 백성을 책망한다. 두 번째 사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 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6:8). 세 번째 사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한다(17:2). 모세의 말은 사실이다. 아무리 생존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양식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에 기인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염려하지 않는다(마 6:31).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원망은, 비록 그것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양식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며, 그것의 본질은 불신앙이다.²²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로 하여금 백성들의 불평에 귀를 막게 하였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영화와 함께, 미디안 광야의 험악함을 두루 경험하였다. 그의 지혜와 학식은 범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는 항상 드러난 것보다는 숨겨진 것을 보는 통찰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에게 가난, 굶주림, 목마름 따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잠시 목상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먼지마냥 바람에 날려 보낼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낸다면, 모세는 사십일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생

22) 손석태, 「출애굽기강의」 (서울: ESP, 2005), 110.

할할 수 있었다(출 34:28).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굶주리고, 목말랐겠으나, 그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자기를 위해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모세는 위대하다.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많은 장점들과 함께 큰 결함을 갖고 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두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자신이 가난한 것은 자기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가 배고픈 것은 자기 사람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기 위함이며, 자기가 목마른 것은 자기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셨다. 모세는 항상 한 걸음 늦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외쳐야 그 문제를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기 보다는, 그들의 숨겨진 불신앙을 폭로하고 비난하였다.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두 번째 결함은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모세에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모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출17:1-7에서도 백성들이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항의할 때, 모세는 그것을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키면서(“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 자신의 고귀한 이상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였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들 중의 하나다. 모세는 백성들의 미성숙함을 품속에 끌어안지 못한다. 흔히 모세는 문제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에야 비로소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중재한다. 만약 모세가 백성들의 항의(출 17:2 전반부)와 관련하여,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백성들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그래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위협하였을까?

IV. 여호수아와의 비교

A. 여호수아 소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māšārēt*)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수 1:1).²³ 이것은 모세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이 여호와와 종(*ebed*)으로 소개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칭호에 걸맞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였으며(수 11:15), 모세가 시작하였지만 끝내지 못했던 사명을 그를 대신하여 성취하였다(민 26:52-56).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신앙과 사명은 모세에게 근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모세가 항상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사명의 뿌리를 찾는 것과 대조된다(출 32:13; 33:1; 민 32:11; 신 1:8; 6:10 etc.).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그의 생애 끝에 이르러서이다(수 24:2-3). 그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안에서 갖는 의미에 관해 말하게 된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와 종”이라는 칭호를 의도적으로 붙여주지 않았다.²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모세의 종”이라는 칭호에서 벗어나 “여호와와 종”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은(수 24:29), 그가 평생 동안 여호와를 위해 살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의 신앙이 마침내 모세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종이다. 종

23) 시종(*māšārēt*)은 주인을 섬기는 젊은 시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을 뜻한다. Trent C. Butler, *Joshua* (WBC 7; Waco, Texas: Word Books, 1983), 10.

24) David M. Howard, *Joshua* (NAC 5;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443.

에게 요구되는 일차적인 특성은 순종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으며,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전쟁하는 것을 미루고 여인과 아이들과 거류민들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세겔으로 간 것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신 11:29; 수 8:30-35). 이렇게 하여 세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서약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다시 한 번 세겔으로 불렀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기 생애의 종국을 앞두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이끌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을 명령 받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권면한다(수 1:7; 23:6).

B.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였다. 여호수아가 희생한 것은 자신의 지위다. 그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때 즉시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사령관 직분에서 은퇴하였다(수 13:1). 그 이후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의 뒤에 서서, 자신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음을 보여주었다(수 14:1; 17:4; 19:51; 21:1).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와 평안을 희생하였다. 그는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한 후에 비로소 담낫 세라를 자기 기업으로 요구하여 그곳에 안주하였다(수 19:49-50). 담낫 세라는 성경에 여호수아와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지명이며, 에브라임 산지 남쪽의 거칠고 가파른 땅에 해당한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은 그 땅이 그다지 중요한 땅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그의 지위와 업적 그리고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민 14:30), 여호수아는 당연히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장 나중에 자기의 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예를 희생하였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모세의 일부인 것처럼 모세의 기록 속에 흡수되어 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위대한 공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죽어서까지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다.²⁵

C.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모세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성향을 나타냈다. 보다 못한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도록 조언하였다(출 18:21-22).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돕는 12명의 대표들을 세우도록 지시 하셨다(민 1: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이 성립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로 70인에게 영이 임하게 하셔서 일시적으로 예언할 수 있게 하셨다(민 11:24-25).²⁶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여호와

25) 황성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분배(여호수아 13:1-7),” 「여호수아서와 약속의 땅」 (프로예클 레시아 8; Th & E, 2005), 125.

26)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했던 영의 일부를 거두어들여서(히브리어 'asal) 70인 장로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정중호는 모세 믿음의 연합(민 11:13)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을 분할하여 나누셨고, 그로 인하여 모세의 위상이 낮아졌다고 말한다. 정중호, “민수기의 해석과 설교,”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0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65. 그러나 이 구절은 모세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모세에게 주어진 영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은 70인 장로들의 권위는 모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R. Dennis Cole, *Numbers* (NAC 38; Nashville, Tennessee:

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민 11:29).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모세는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였던 70명의 장로들과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²⁷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질문하였다(민 12:2). 고라가 유명한 족장들 이백오십 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더불어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하고 비난했다(민 16:3). 더욱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였다(민 16:13). 모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노력 하였으나, 백성은 모세의 의도를 의심하고,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위에서 지배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서 모세와 백성은 동역자가 아니었다. 모세는 명령하는 자이며, 백성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이미 자기 형제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출 2:14).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이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랐다. 그는 협력하는 지도자였다.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의 기적은 모세 자신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일어났다. 그러나 요단강을 마르게 한 여호수아의 기적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일어났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단지 인도자일 뿐이며, 기적은 법궤를 멘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192.

27) 더글라스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여호와와 지시에만 순종하는 모세를 “특이하면서 고립된 집단의 지도자”(Leader of an Enclave)라고 부른다. Mary Douglas,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JSOTS 15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58-59.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으나, 그들의 역할은 보조적이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는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으며, 백성들이 크게 소리칠 때 성벽이 무너졌다. 모세는 비록 천부장/백부장/오십부장/십부장을 세웠으나, 모든 일을 혼자서 책임지며 처리했다. 비난도 혼자 받았으며, 영광도 혼자 받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 성 공격이 실패했을 때,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수 7:6). 기브온 주민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그들과 조약을 체결했다(수 9:15). 나중에 그 일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회중들은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고 장로들을 원망했다(수 9:18).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일에 장로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협력하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백성과 협력하고 그들을 설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후에 있게 되는 민주적 지도자 상을 보여준다.

V. 맺는 말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예수님과 비견되는 유일한 인물로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히 3:5-6). 그는 이집트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탁월한 사람이었다(행 7:22).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 했다(출 34:29-35). 이처럼 위대한 모세이

면서,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민 12:3).²⁸

하지만 모세와 그의 백성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이 너무나 특별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민 11:10-15).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즉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순수한 의도를 언제나 의심했으며, 무리를 형성하여 그의 권위에 대항하였다. 모세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분노하며 저주하였다. 모세의 사역이 끝날 무렵, 모세는 요단 강 동편의 땅을 분배 받기를 원하는 르우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라고 혹독하게 비난한다(민 32:14).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단절은 민수기 20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모세를 비난하였다(민 20:2-5).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백성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패역한 자들”(mārāh)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민 20:10).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백성들이 모세의 인내를 한계점까지 몰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²⁹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패역하다”(mārāh, <개역> 거역하다)라

28) 온유함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뜻한다. R. Dennis Cole, *Numbers*, 202.

29) Philip J. Budd, *Numbers* (WBC 5: Waco, Texas: Word Books, 1984), 220.

고 선언하셨다(민 20:12, 24).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³⁰ 이 일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그들에 대한 원망을 끝까지 품고 있었다(신 1:37; 3:26; 4:21).³¹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과 동포의식이 있었고, 그

- 30) 빅터 헤밀턴, 445.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큰 논란이 있어왔다. 밀그롬은 중세 유대 주석가들이 제시한 10개의 설명들을 언급하고 있다. 밀그롬 자신은 모세의 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물을 내랴?” Jacob Milgrom, “Magic, Monotheism and the Sin of Moses,” in *The Quest for the Kingdom of God* edited by H.B. Huffmon, F.A. Spina and A.R.W. Green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3) 251-258, esp. 258. 프롬은 모세가 가져간 지팡이가 아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민 20:9). 따라서 그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의 대한 잠재적 반란자들에 대한 경고로 삼기 위해 보존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불평을 그치게 만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다. 프롬은 이것이 모세의 죄라고 생각한다. William H. Propp, “The Rod of Aaron and the Sin of Moses,” *JBL* 107/1 (1988), 22.
- 31)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밝히는 신명기의 구절들(신 1:37; 3:26; 4:21)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로퐁크에 따르면, 신명기는 모세가 죄 있는 백성들을 위한 불모(hostage)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Norbert Lohfink,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4) 114. 메릴은 신 1:37의 Biglalkem (개역 “너희의 연고로”)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C 4;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83. 크레이기는 모세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그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P.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6) 105. 크리스텐슨 역시 크레이기와 같은 의견이다. Duane L. Christensen, *Deuteronomy I-II* (WBC 6A; Dallas, Texas: Word Books, 1991) 31. 티게이는 신명기의 이 구절들을 민수기 20장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는 모세 자신의 죄로 기술되었던 사건을 신명기에서 세 번이나 백성들의 죄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신 1:34-36이 정탐꾼과 관련된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37이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게이는 신명기의 세 구절들은 민수기 13-14장의 정탐꾼 사건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425.

들을 위해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희생하였으며, 광야 여정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하며,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와 같은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만일 세 번의 원망 사건들, 특히 나중 두 번의 사건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어땠을까? 모세처럼 위대하고 모세처럼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참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동역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한다.

장종현 박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신앙 운동, 신학회복 운동, 영적 생명 운동, 하나님나라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그리고 나눔 운동”을 추구한다고 말한다.³² 만일 우리가 모세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감정과 의지와 사유에 있어서조차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는 이웃을 비난하기 보다는, 그들의 육체적이며 영적인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2)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 14f.

참고문헌

- 강성열. "출애굽 세대의 광야 유랑,"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0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03-314.
- 손석태. 「출애굽기강의」. 서울: ESP, 2005.
- 웬함, 고든. 「모세오경」.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 이한영. 「역사와 서술에서의 오경 메시지」. 고양시: 크리스찬출판사, 2008.
- 장중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2010.
- 정규남. 「출애굽기」. 서울: 햇불, 2006.
- 정중호, "민수기의 해석과 설교,"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0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5-68.
- 해밀턴, 빅터. 「오경개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황성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분배(여호수아 13:1-7)," 「여호수아서와 약속의 땅」. 프로에클레시아 8: Th & E, 2005, 109-127.
- Budd, Philip J. *Numbers*. WBC 5: Waco, Texas: Word Books, 1984.
- Butler, Trent C. *Joshua*. WBC 7: Waco, Texas: Word Books, 1983.
- Christensen, Duane L. *Deuteronomy 1-11*. WBC 6A: Dallas, Texas: Word Books, 1991.
- Coats, George W. *The Moses Tradition*. JSOTS 161: Sheffield, JSOT Press, 1993.
- Cole, R. Dennis. *Numbers*. NAC 3B: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 Craigie, P.C.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6.
- Douglas, Mary.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JSOTS 15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Durham, John I. *Exodus*. WBC 3; Waco, Texas: Word Books, 1987.
- Frankel, David. *The Murmuring Stories of the Priestly School*. SVT 89; Brill, 2002.
- Hendel, Ronald. "The Exodus in Biblical Memory," *JBL* 120/4 (2001), 601-622.
- Howard, David M. *Joshua*. NAC 5;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 Keil, C.F. & Delitzsch, F. *Jeremia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VI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7.
- _____. *The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7.
- Lohfink, Norbert.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4.
- McBride, S. Dean. "Transcendent Authority: The Role of Moses in Old Testament Traditions," *Interpretation* 44/3 (1990), 229-239.
- Merrill, Eugene H. *Deuteronomy*. NAC 4;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Milgrom, Jacob. "Magic, Monotheism and the Sin of Moses." In *The Quest for the Kingdom of God* edited by H. B. Huffmon, F.A. Spina and A. R. W. Green.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3, 251-265.
- Propp, William H. "The Rod of Aaron and the Sin of Moses," *JBL* 107/1 (1988), 19-26.
- Sarna, Nahum M.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Spina, Frank Anthony. "Israelites as *gērî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dited by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Philadelphia, Pennsylvania: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83, 321-335.

Tigay, Jeffrey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Van Seters, John.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4.

(사전)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vol. 15.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84.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6.

모세의 리더십과 개혁주의생명신학

황성일(Sung-Il Hwang)

광신대학교, 구약학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봉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다. 그가 가르치는 모든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들이었다(신 5:33; 8:1, 3). 모세는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르치는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모세 역시 그와 같은 결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모세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2:11-22절에서 모세 리더십의 장점들뿐만 아니라, 한계가 나타난다. 모세 리더십의 한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그들 형제들 중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생각했다.

출애굽기 15-17장에 기록된 세 번의 원망 사건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갔다. 첫 번째 원망 사건(출 15:22-26)에서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무난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망 사건(출 16:1-36)에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투덜거렸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원망 사건(출 17:1-7)에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원망했다. 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사항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으나, 모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지시하셨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모세는 비난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해소해 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려는 자세보다는, 책망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다르다. 모세는 백성들과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고, 그들과 협력자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으며, 그들과 협력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했다.

모세의 리더십이 갖는 한계가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또 한 번 갈증의 위기를 만났을 때(민 20:2-13), 백성의 비난에 대하여 모세는 백성과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막으로 피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에게 나아갔으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이 패역한 자라고 책망하셨으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모세와 백성 사이의 이와 같은 갈등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갈등은 결국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모세, 여호수아, 리더십, 원망, 개혁주의생명신학

Abstract

Moses' Leadership among People's Murmuring and Reformed Life Theology

Sung-Il Hwang

Kwangshin University, Old Testament

The servants of God are working for His people to get life. Moses also made constant effort so that Israelite people came to get life. All the commandments that he taught to them were designed for them to get life (Deut. 5:33; 8:1, 3). Moses said that the people, if they wanted to get life, should obeyed the commandments that he taught. But the people whom Moses, the very person that had the purpose to give them life, died in the desert. And Moses himself could not escape from the ending. Therefore we, the theologians and pastors seeking after the theology for life, can learn a lesson from Moses.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Moses' leadership were shown in the story of Exodus 2:11-22. The weakness of his leadership is that Moses would not understand the Israelite people, their mind, and could not console them in their misfortune. Besides the people of Israel regarded Moses as an alien, not as one of their brothers.

In the three murmuring events written in Ex. 15:22-17:7, the conflict between Moses and the people of Israel was escalating to a higher level. In

the first murmuring event(Ex. 15:22-26), in spite of the people's murm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ses and the people was tolerable, since Moses did not blame them but just cried to God. In the second murmuring event(Ex 16:1-36),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and murmured that it was irresponsible for Moses to bring them out of Egypt. At this murmuring, Moses criticized them that they grumbled against God as well as himself. In the third murmuring event(Ex 17:1-7), the people quarreled with Moses. And they murmured that it was irresponsible for Moses to bring them out of Egypt. At this time, Moses blamed them that they quarreled with himself and tested God. Besides he said that they tried to kill him.

God, however, did not blame the people of Israel. God complied with their request. Instead God ordered Moses to do his duty. It appears that a certain gap existed between Moses and God. Moses did not understand God as well as the people.

Such leadership of Moses was not like that of Joshua. Moses did not share his feelings with the people, and did not act as their partner.

Such weakness of Moses' leadership made the people and the leader to be hostile to each other. In another crisis of thirst(Num. 20:2-13), Moses addressed the people as rebels. God, however, said that Moses himself rebelled against Him, and prohibited Moses from entering the land of Canaan.

A great leader can have his own weakness.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and its leader blocks up the passage toward life.

Key words: Moses, Joshua, leadership, murmuring, Reformed life theology